

사도행전 6장 성경공부

≡ 메모	스데반
📅 날짜	@2025년 3월 16일
📁 분류	사도행전
📁 폴더	하나님
☑ 체크박스	☒

사도행전 6장 전체에 나타나는 당시 예루살렘에 거했던 여러 종류의 사람은 누구누구인가?

-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다. 그 무렵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왜냐하면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일곱명을 뽑으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 모든 사람이 찬성하여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비롯하여 빌립, 브로고로, 니카노르,
디몬, 바메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뽑았다. 사람들이 이들을 사도들
앞으로 데려오자, 사도들이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고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이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스테반이 잡히다.

-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자유인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스테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합세하여 스테반과 논쟁했지만, 스테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 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그들에게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거짓말 하게 만들었다.
-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 그들은 이런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을 화나게 만들고, 스테반을 공의회로 잡아가게 했다.
-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 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다 ” 라고 거짓 증언했다.
-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사도행전 6장 성경 공부 주제: 예루살렘 공동체 안의 다양한 사람들과 스데반의 신앙

1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

사도행전 6장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채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어(혹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출신. 전통적인 유대 관습을 따름.
-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 디아스포라 출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공동체 내에서 소외당하는 문제 발생.
- **과부들:** 당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 교회의 구제를 통해 돌봄을 받음.
- **일곱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콜라). 구제 사역을 담당.
- **자유민들(자유인 회당 사람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구성된 회당의 유대인들. 스데반과 논쟁함.
- **제사장들:** 일부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임.

깨달음:

초대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다. 그러나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회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도 이와 같은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2 스데반의 역할과 신앙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러나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논쟁을 벌이며 핍박을 받게 된다.** 그의 말과 지혜를 이길 수 없자,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혐의를 씌운다.

깨달음:

-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반대와 핍박이 따를 수 있다.
 - 세상은 진리를 들으면 때때로 반응이 거칠어질 수 있다.
 -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 질문

1.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2.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3. 내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